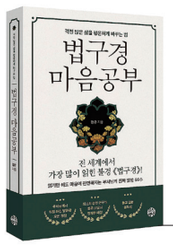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1~5/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영화스님의 선명상	영화 스님	운주사
3	요가수트라(원전주해)	마하리쉬파탄잘리	동문선
4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 논리	김성철	오타쿠
5	초기불교입문:초기불교 그 핵심을 담다	각묵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6	윤회(대원불교학술총서15)불교의 마음업 우주에 대한 길잡이	로저 잭슨	운주사
7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8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9	동화가 있는 철학서재:동화에 빠져든 철학자가 전하는 30가지 인생철학	이일야 지음	담앤북스
10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 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책세상

'법구경'서 건져 올린 사유의 정수들



법구경 마음공부
정운 스님 지음
유노책주/ 1만9000원

불교학자 정운 스님 전하는
'법구경' 대한 친절한 해설
게송 423수 중 66수 선별
"경전 읽는 즐거움 알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러시아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15년 동안 동서고금의 고전과 경전들을 탐독하고 그 안의 금언(金言)들을 옮겨 적었다. 이를 수상록으로 묶었는데 〈인생이란 무엇인가〉 등의 제목으로 번역돼 전해진다. 톨스토이가 옮겨 적은 성현의 말씀 중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도 있었는데, 그 경전이 〈법구경〉이다.

대문호 톨스토이마저 매료시킨 불교 경전 〈법구경〉은 팔리어로는 〈담마빠다(Dhammapada)〉라고 하며, 이는 '가르침의 말씀' '진리의 길'을 의미한다. 부처님의 말씀이 423수의 게송으로 전해지기에 읽기 쉬워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읽히는 불교 경전이기도 하다.

불교학자이자 경전 연구가인 정운 스님이 저술한 〈법구경 마음공부〉는 〈법구경〉의 금언 중 우리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부처님 말씀 66수만을 골라 담은 책이다. 이는 스님의 40년 수행과 사유가 담긴 결과물이기도 하다. 단순히 경전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법구경〉의 지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시선에서 자세히 해설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법구경 마음공부〉는 단순히 〈법구경〉의 내용을 나열하지 않는다. 경전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나를 다스리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제1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법구경〉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 알아야 할 불교의 기본 개념을 설명한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또 부정적인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교의 핵심 개념과 함께 알려 준다.

제1장에서 불교 교리에 대한 감이 잡혔다면, 제2장에서는 나를 돌아보고 성숙한 마음을 갖는 법을 이야기한다. 인욕의 자세를 가질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업'과 관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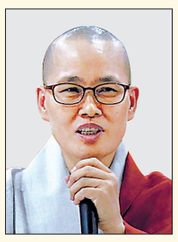
제3장은 나를 괴롭히는 집착과 탐욕을 내려놓는 장이다. 부처님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셨다. 내 눈을 멀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소한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끈다.

제4장은 어른스러운 마음가짐으로 좋은 인연을 쌓는 법을 알려 준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아 주는 내용이 가득하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다.

제6장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통해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죽음을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정리하고 있다.

〈법구경〉에 담긴 모든 가르침은 구체적이고 명료하다. 그래서 저자 정운 스님은 〈법구경〉의 잠언들은 인생의 지침으로 삼을 만하다고 강조한다.

"대부분 대승불교 경전이 교리상의 문제나 계율적인 쟁점을 다루는 것과 달리 〈법구경〉은 누구나 삶의 진리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짤막한 시를 통해 전한다. 이를 한 구절씩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삶의 바른 행로를 전하고자 하는 부처님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올 것이다." – '여는 말' 中



▲저자 **정운 스님**은 동국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조계종 불학연구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교육아사리, 대승불전연구소장, 〈한국선학〉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출가한 이래로 불교의 다양한 경전들을 연구하였고, 이를 통해 깨달은 바를 칼럼과 저서로 중생에게 전하고 있다.

책 속에서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Epictetus)는 "사람은 사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한다"라고 하였다.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나눠진다는 말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한 생각에 따라서 어리석은 중생도 되지만, 지혜로운 부처도 된다(成佛成魔一念之間)"라고 말한다. 어떤 상황(또는 사건, 물건, 사람)을 고통으로 보느냐, 행복으로 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스스로 문제 삼지 않으면 고뇌는 없다. 행복이란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늘 그 자리에서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8만 4천 번뇌를 넘어서라'에서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다고 상대를 비난하고 비방했다는 이야기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현시대에도 근거가 없는 악플을 달고 비방을 일삼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고대에도 저런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 놀랍다. 내가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방하면, 언젠가는 그 화살이 부메랑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한다.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에서

법정 스님은 살아생전 잠시 출타를 할 때 늘 죽어 가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처럼 짐을 꾸렸다고 한다. '섣달 그믐날(죽음)이 찾아오면 모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가니, 이를 미리 연습하자'라는 뜻에서 비롯한 행동이었다.

(중략) 법정 스님 말씀대로 죽음에 대한 염두는 생의 백서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이다. 불안에 떨며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에 집중해 열심히 살자.

–'걱정할 시간에 집중하라'에서

불교 잡지 톺아보기

AI시대, 부처님 가르침 상기하다

월간 〈불교문화〉 5월호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발행하는 불교 대중문화지인 월간 〈불교문화〉 5월호(통권 제285호)가 발간됐다.

〈불교문화〉 5월호 특집으로 '이 시대의 부처님'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부처님의 지혜를 조명했다.

송덕사 주지이며 행복문화연구소 소장인 원빈 스님은 'AI와 경쟁해야 하는 오늘 이 시대 붓다의 역할'을 주제로 중독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현대 사회에 붓다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광법회 선덕(先德) 혜담 스님은 '부처님이란 누구인가'를 통해 팔상시현(八相示現)을 통해 부처님 생애를 설명하했다.

김재성 능인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학과 교수는 '테라와다 불교의 최고의 스승, 붓다'를 통해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고타마 붓다를 최고의 스승으로 존경하며, 그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통해 아라한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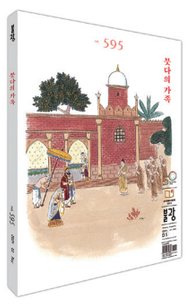
석길암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교수는 '대승불교가 추구한 붓다'를 주제로 대승불교는 보살 사상을 강조하며, 다불(多佛)과 다보살(多菩薩)이라는 관념은 붓다를 바라보는 대승불교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최유진 경남대학교 명예교수는 '부처님 법(佛法)의 핵심은 무엇인가'에서 부처님의 법은 연기의 법칙, 삼법인, 사성제를 핵심으로 이뤄져 있음을 살폈다.

이밖에도 '지리산 생태 그림 순례, 대숲의 노래' '공부하는 불교, 봉은사 봉은불교대학' '10분으로 배우는 불교, 불교와 의식과학' '슬기로운 수행 생활, 티베트 불교와 지오 스님의 수행 이야기' '5월 화요 열린 강좌, '지금, 여기'에서 '종교'의 의미를 되묻는다' 등 풍성한 읽을거리를 담겼다.

신중일 기자

부처님 가족들의 감동 이야기

월간 〈불광〉 5월호



불광미디어가 발행하는 월간 불교지 〈불광〉 5월호(통권 제595호)가 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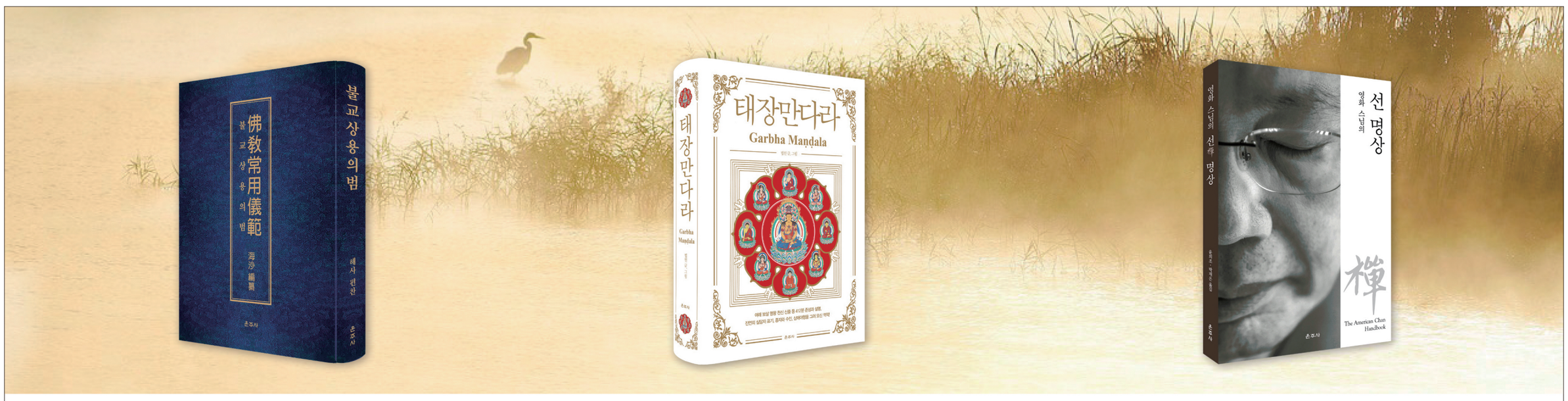
5월호의 주제는 '붓다의 가족'이다. 경전 등 전해져 오는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은 네 번에 걸쳐 고향인 까삘라 성을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은 대각(大覺)을 성취한 후 6년째 되던 해에 아버지 정반왕과 석가족의 초청에 의해 이뤄졌고, 두 번째 방문은 석가족과 외가뻘인 꼴리야족 간의 물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세 번째 방문은 아버지 정반왕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네 번째 방문은 석가족의 멸망과 관련된다.

부처님의 네 번에 걸친 방문은 아버지 정반왕을 제외한 가족의 출가로 이어졌고, 석가족과 꼴리야족의 많은 청년 역시 출가했다. 첫 번째 방문 시 "사문이시여, 유산을 제가 물려주소서"라고 말하는 열두 살 남짓의 아들 라훌라에게 '출가'라는 유산을 물려줬다. 세 번째 방문에서는 양모 마하빠자빠띠와 아내 야소다라가 출가했다.

사촌 간으로 추정되는 젊은 아난다는 첫 번째 방문 시 출가해 열반에 들 때까지 부처님을 시봉했고, 후에 부처님을 배반하고 승단의 분열을 꾀한 것으로 전해지는 데와닷따 역시 친족인 것으로 추정된다.

'월간 불광' 5월호에서 아내 야소다라, 아들 라훌라, 양모 마하빠자빠띠의 출가와 관련된 이야기, 부모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신화화된 이야기를 만나 볼 수 있다. 불전에는 조연으로 등장했지만, 잔잔한 감동을 주는 부처님의 가족을 만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설행하는 재 의식 총망라!
불교상용의범
조석예불과 사시마지, 각단 예경의식, 천도재나 각종 재회 시 설행되는 제반의식문, 각단에 올리는 불공의식문, 각종 시식과 영반 등 누구나 편리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편찬!
해사 편찬/사륙배판/양장/696쪽/값 50,000원

『대일경』에 근거한 태장만다라의 412분 존상을 재현!
태장만다라
중대팔엽원부터 외금강부원까지 12부원을 도상화하고, 412분 존상에 대해 의미와 형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진언과 실담 범자, 종자, 수인, 삼매야형 등을 부여.
법헌 글 · 그림/사륙배판/양장/688쪽/값 100,000원

혼자 명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서!
영화 스님의 선 명상
초심자를 위해 기초적인 앉는 자세부터 경험 있는 수행자를 위한 기본 마음가짐과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명상 안내서이자 지침서'이다.
영화 스님 지음, 윤희조, 박재은 옮김/신국판변형/무선/244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